

## 자유놀이 상황에서 성인의 질문유형에 따른 3-5세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주제유지를 위한 언어능력 탐색 연구\*

임 동 선\*\* · 최 지 우\*\*\* · 김 진 주\*\*\* · 이 강 은\*\*\* · 박 원 정\*\*\*\*

본 연구는 성인의 질문유형에 따른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아동의 주제유지능력을 비교하고, 언어능력이 주제유지능력을 예측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3-5세 일반아동 103명, 어휘발달지연 아동 29명, 총 132명을 대상으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성인의 질문유형을 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 질문으로 분류하고, 각 질문유형에서 아동의 주제유지횟수를 분석하여 질문유형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예측하는 언어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질문에서 일반아동 집단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수용어휘능력이 특수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아동의 현재 언어능력은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서는 수용어휘능력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예측하였다.

주제어 : 자유놀이 상황, 질문유형, 주제유지능력, 언어능력

---

\*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A2C100748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R1A2C1007488).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교수(제1저자 & 교신저자, sunyim@ewha.ac.kr)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Ph.D Cours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성인과 수많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대화 참여 기술, 사고 표현 기술 등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김영태, 2002; 임동선·박원정·천성혜·이여진·이지연, 2015). 특히 유아들은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표현의 기회를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주어지는 성인의 언어적 자극은 아동의 의사소통능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강성리, 2020; 김설영·최윤희, 2013; 김지은·최윤희, 2018; 박선화·노진아, 2019; 이후민·박지연, 2020). 특히, 성인의 질문은 아동의 사고를 다양한 방향으로 이끌며 지식의 심화를 돕는 중요한 언어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최지은·이은경, 2015; 홍경훈, 2009; Rowe, Leech, & Cabrera, 2016). 이는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성인의 질문이 아동의 이해도와 의사 표현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다(박찬우, 2020; 윤지혜·김은경, 2020).

성인이 아동에게 제시하는 질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사와 부모의 질문유형이 아동의 언어사용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윤한샘·김화수, 2019; 이귀옥, 2006; 이상언·임동선, 2018). 성인과 아동의 책 읽기 상호작용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을 사실 질문과 추론 질문으로 구분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질문유형에 따라 아동의 반응정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이상언·임동선, 2018). 또한, 성인의 질문을 추상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던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상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어휘 다양도 및 평균 발화 길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최현주·이지현, 2015). 아동과 성인의 자유 놀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입력 유형에 따라 아동의 단어 유형 및 빈도수와 형태소유형수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유형을 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으로 분류하였다(이귀옥, 2006). 이러한 분류 기준은 앞선 연구들에 비해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 적합한 형태를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어머니의 질문유형 중 특수질문이 아동의 문법형태소유형수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 만 1세의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개방형질문보다 단어나 단답형을 도출할 수 있는 특수질문 형태가 해당 연령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지연 아동을 자주 접하는 치료사 혹은 특수교사들이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질문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아동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발화 표본을 수집하는 방식에는 자유놀이, 대화, 이야기 상황이 주로 활용되며, 이와 같은 자발화 분석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와 더불어 아동의 언어능력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김성수·이상경, 2008; 김영태, 2002; 임동선 외, 2015). 이 중 자유놀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5세 아동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놀이상황을 통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발화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은 아동의 어휘, 구문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화 개시, 대화 차례 주고받기, 주제 유지하기 등과 같은 화용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용적 요인 중 대화차례 주고받기는 대화에 있어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차례 주고받기의 횟수는 아동의 주제 운용능력을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변별력이 부족한 변인에 해당한다(김성은·이윤경, 2007; 허현숙·이윤경, 2012; 홍옥표·이윤경, 2016). 따라서 대화차례 주고받기에서 더 나아간 개념인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는 능력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Owens, 2011/2013).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어가는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성인의 언어적 자극을 통해 아동이 주제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과정 또한 필수적이며, 선행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인 혹은 또래의 언어적 자극이 아동의 주제 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왔다(박영룡·최소영, 2019). 그러나 성인의 발화 유형이나 질문유형에 따라 학령전기 아동의 주제 유지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분석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체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와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KBPR, 한지윤·임동선, 2018)를 사용하였다.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우리말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을 진단 또는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이며, 아동의 어휘력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제시한다. 본 검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며 생활연령에 따른 어휘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김영태, 2002).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도구(KBPR)는 이중언어 아동 중 언어발달 지연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ALDeQ(Alberta Language Development Questionnaire, Paradis, Emmerzael, & Duncan, 2010)가 한국어로 재구성된 형태이며,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Paradis et al., 2010). ALDeQ의 세부 내용은 아동의 과거 발달력을 기반으로 한 현재 언어 수준,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검토할 수 있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 초기 이정표, B. 현재 언어능력, C.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D. 가족력’의 네 가지 하위 항목을 포함한다. KBPR은 아동의 언어능력만을 평가하는 설문지가 아닌, 일상에서의 선호활동 영역 및 의사소통 시 아동의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척도로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모 보고형식의 평가도구는 표준화 검사와 더불어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폭넓은 배경정보를 통하여 전반적인 언어 발달력과 함께 아동의 언어 환경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아동 언어발달의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한지윤·임동선, 2018; Dale, Tosto, Hayiou-Thomas, & Plomin, 2015). 실제로 아동의 언어 평가에 있어 부모 보고는 평가도구 자체를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치료실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아동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치료실 상황보다 더욱 대표성 있는 언어자료로 기능한다(한지영·김영태·김경희, 2002).

정리하자면, 성인과의 대화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주제 유지 능력은 추후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주제 유지 능력을 예측하는 아동의 언어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은 아동을 평가 및 증재할 시 효과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지연 아동은 언어 및 화용적 요인에서의 발달이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주제유지능력에 대한 예측요인은 집단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김화수·민운정·김지현, 201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언어능력에 적절한 질문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가정이나 치료실, 나아가 통합교육현장에서 언어지연 아동과의 질 높은 상호작용에 효과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요구된다(윤한샘·김화수, 2019).

## 2. 연구문제

1. 자유놀이 상황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따라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및 연령 집단 간 주제유지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자유놀이 상황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주제유지비율은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3. 자유놀이 상황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따른 일반아동 및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주제유지비율은 아동의 수용어휘력 및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결과의 예측요인이 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만 3-5세인 일반아동 103명, 어휘발달지연 아동 29명 총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1) 신체·인지 발달 문제로 인하여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며, (2) 수용어휘력 검사 10%ile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일반아동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수용어휘력 검사 10%ile 이상, (2) 신체·인지 발달 문제로 인하여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언어 및 연령집단에 대한 대상자 특성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언어집단에 따른 대상자 특성

	월령		REVT-R	
	<i>M</i>	<i>SD</i>	<i>M</i>	<i>SD</i>
일반아동 (n=103)	54.13	8.95	52.08	16.53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52.41	9.15	19.90	11.74

\*REVT-R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표 2> 연령집단에 따른 대상자 특성

	월령		REVT-R	
	<i>M</i>	<i>SD</i>	<i>M</i>	<i>SD</i>
3세 (n=45)	43.31	2.46	31.42	14.72
4세 (n=47)	54.83	3.68	45.06	19.43
5세 (n=40)	64.23	3.01	60.23	16.55

\*REVT-R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수용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자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orean Brief Parent Report: KBPR, 한지윤·임동선, 2018)를 사용하였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REVT는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수용어휘력 검사(REVT-R)는 총 185문항으로 아동은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연구자가 불러주는 단어와 일치하는 그림 하나를 손가락으로 선택하도록 지시받았다. 연속한 여덟 문항 중 여섯 문항 이상 틀리면 검사가 종료되었으며 각 문항당 1점으로 총점이 계산되었다. 한지윤과 임동선(2018)의 연구에 따르면, KBPR은 아동의 언어능력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달, 환경, 경험에 대한 부모 보고이며 언어와 관련된 폭넓은 평가가 가능하다. 검사는 초기 이정표 영역, 현재 언어 수준 영역, 행동 패턴 및 선호활동 영역, 가족력 영역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초기 이정표 영역에서는 신체발달과 언어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신체발달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다루었다. 이어 현재 언어능력을 살펴본 두 번째 영역에서는 아동의 조음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장구성능력 등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부모의 관점에서 또래와 비교하였고, 아동의 인지능력 및 학습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행동 패턴 및 선호활동 영역은 읽기 및 쓰기 능력, 선호활동, 학습의 효율성, 선호활동 패턴, 그리고 의사소통 상황 시 아동의 성향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족력 영역은 언어발달지연을 야기하는 요인을 다루면서 유전적 요인과 부모의 교육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아동의 부모에게 검사지를 전달한 후 회수하였으며 총점은 해당 연구와 동일하게 영역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발화 수집은 9인의 연구원이 대상 아동의 교육기관 및 가정에서 시행하였다. 검사는 독립적이고 소음이 적은 공간에서 연구원과 아동이 일대일로 앉아 놀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대상 아동의 자발화 녹음은 스마트폰(Samsung Galaxy Note 2)을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상황은 기차놀이, 의사놀이, 소꿉놀이 총 세 가지이며 각각 10분씩 총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한 가지 놀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녹음본의 초반 2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 4. 자료 분석

성인과 아동의 발화는 녹음 후 4주 이내에 전사되었으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 8인에

의해 이루어진 후 4인의 연구원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성인의 질문유형 분류 및 아동의 주제유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수집된 전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성인의 발화 중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질문은 최현주와 이지현(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의문형 어미로 종결된 문장을 질문으로 분류하되, 의문형 어미로 종결되지 않았지만, 문장의 끝을 올려 말함으로써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유도하는 발화 또한 질문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의문형 어미로 종결되었지만, 아동에게 비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명령 의문문이나,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서술의 효과를 가진 수사 의문문의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저 장난감 가지고 와볼래?’의 경우 의문형 어미로 종결되었지만, 아동에게 비언어적 반응을 촉발하는 것이므로 질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동의 말을 그대로 되묻는 의문문 또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발화에 대해 ‘응?’, ‘뭐라고?’ 등은 문장의 끝을 올려 말하는 형태를 띠지만 유의미한 질문이 아닌 아동의 말소리를 되묻는 상황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진짜?’, ‘그래?’와 같이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지만 감탄사의 성격을 가지는 발화 또한 질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성인의 질문유형은 이귀옥(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순질문, 특수질문, 그리고 개방형질문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이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정해진 보기 안에서 답을 고르는 선택형 질문을 단순질문으로 분류하였다. 단순질문에는 ‘기차 타고 갈까?’, ‘의사 하고 싶어, 환자 하고 싶어?’ 등이 포함된다. 특수질문은 아동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 상황 묘사 등을 나타내는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점심에 뭐 먹었어?’, ‘이건 무슨 동물이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질문은 방법이나 이유, 미래 계획이나 소망 등을 묻는 말로, ‘어떻게 해야 하지?’, ‘왜 안 될까?’, ‘뭐 하고 싶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문유형의 정의 및 예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인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발화에 있어 주제가 유지되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표 3> 질문유형의 정의

질문유형	정의	예시
단순질문	- ‘예/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 정해진 보기 안에서 답을 고르는 선택형 질문	“기차 타고 갈까?”, “의사 하고 싶어, 환자 하고 싶어?” 등
특수질문	- 아동의 과거 경험을 대답하도록 하는 질문 - 아동이 눈앞의 상황이나 사물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점심에 뭐 먹었어?”, “이건 무슨 동물이야?”, “어디가 아프대?” 등
개방형 질문	- 방법이나 이유, 미래 계획, 소망 등을 묻는 말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안 될까?”, “뭐 하고 싶어?” 등

로, 첫 번째는 아동이 성인의 질문에 대해 정답을 말한 경우, 두 번째는 오답을 말했지만, 주제가 유지된 경우, 세 번째는 아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략했으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화제를 제시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여긴 어디지?’라고 장소에 관한 질문했을 때 아동이 ‘동물’이라는 대답을 한 경우이다. 장소를 묻는 말에 아동이 언어적 장소를 답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아동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고 ‘동물원인가?’라고 반응하며 적절한 대화가 이어졌으므로 주제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 번째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기차길 뭘 거야?’라고 질문하였을 경우, 아동이 ‘어떻게 떼지?’와 같이 기차길과 관련된 새로운 화제를 제시한 경우 주제가 유지되었다고 분류했다.

한편, 아동이 주제를 이탈하였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아동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주제를 제시한 경우, 세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 예를 들어, 성인이 ‘주사도 맞았고, 뭐 해줄까 이제 또?’라고 질문하였을 때 아동이 ‘우리 반에 선생님 받을 거예요?’라고 전혀 다른 주제를 제시한 경우 주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

〈표 4〉 주제유지와 주제이탈 기준

구분	기준	예시
주제 유지	아동이 성인의 질문에 정답을 말한 경우	성인: 어디 가고 있어요? 아동: 집에 가고 있어요. 성인: 어떻게 가면 돼요? 아동: 기차 타고 가요.
	아동이 성인의 질문에 오답을 말했지만, 주제가 유지된 경우	성인: 여긴 어디지? 아동: 동물. 성인: 아, 동물원인가?
	아동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략했으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새로운 화제를 제시한 경우	성인: 기차길 뭘 거야? 아동: 어떻게 떼지?
주제 이탈	아동이 성인의 질문에 대해 무응답한 경우	성인: 동물원 갈까? 아동: (무응답) 성인: 동물원 누가 갈까?
	아동이 성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주제를 제시한 경우	성인: 사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아동: 저 몇 시 차인지 알아요?
	적절한 수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	성인: (아동이 만든 것을 보며) 이게 뭐야? 아동: 몰라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성인이 소꿉놀이에서 아동이 만든 것을 보고 ‘이게 뭐야?’라고 질문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했을 때 주제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분류했다. 각 질문유형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은 아동이 주제를 유지한 답변 횟수를 성인의 질문 횟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 5.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성인과 아동의 대화에 대한 발화 분석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 학생 2명이 전체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15명의 전사 자료를 임의로 선정하여 성인과 아동의 발화를 분석했으며, 질문 및 답변을 분류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후, 검사자 간 일치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를 거쳤으며 검사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일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뢰도는 두 연구자 간 일치한 반응을 전체 반응 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성인의 질문에 대한 검사자 간 일치율은 95.84%, 아동의 주제유지에 대한 검사자 간 일치율은 93.26%로 나타났다.

## 6. 통계분석

언어집단 및 연령집단 간의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의 차이 분석에는 다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질문유형에 따른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간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력 및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이 실시되었다. 더불어 최종적으로 각 집단의 언어능력을 설명해주는 주제유지비율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케이스를 지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 26(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질문유형에 따른 언어 및 연령 집단 간 주제유지비율 차이 비교

성인의 질문유형에 따른 언어 및 연령 집단 간 아동의 주제유지비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질문유형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에서 언어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질문유형을 단순질문, 특수질문, 그리고 개방형질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특수질문에서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_{(1,130)} = 4.198, p = .043$ ). 단순질문과 개방형 질문에서는 언어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또한 KBPR A영역( $F_{(1,130)} = 13.256, p = .000$ ), B영역( $F_{(1,130)} = 24.135, p = .000$ ), C영역( $F_{(1,130)} = 6.898, p = .010$ ) 및 총점( $F_{(1,130)} = 22.737, p = .000$ )에서 언어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의 언어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질문유형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에서 연령집단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질문유형을 세분화하여 보았을 경우, 특수질문( $F_{(2,129)} = 3.994, p = .021$ )과 개방형질문( $F_{(2,129)} = 3.086, p = .049$ )에서 연령집단 간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단순질문과 KBPR 하위영역 및 총점에서도 연령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 특수질문과 개방형질문의 주효과에 대해 3-5세 중, 어떠한 연령 집단에서 차이가 유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특수질문에서 3세 아동과 5세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25$ ), 개방형질문에서도 3세와 5세 아동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16$ ). 질문유형별 주제유지비율의 연령집단 간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의 세 가지 질문유형 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p > .05$ ), 언어집단과 연령집단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어집단, 연령집단, 질문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언어집단에 따른 주제유지비율 및 KBPR 총점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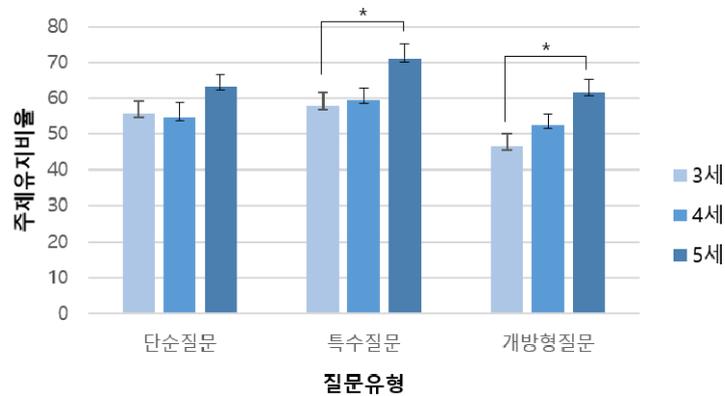
언어집단		M	SD	F
단순질문	일반아동 (n=103)	57.49	24.55	.131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58.49	24.51	
특수질문	일반아동 (n=103)	65.01	22.76	4.198*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53.02	25.76	
개방형질문	일반아동 (n=103)	54.77	24.42	1.211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47.76	24.86	
KBPR 총점	일반아동 (n=103)	48.07	6.774	22.737**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41.21	9.037	

\* $p < .05$  \*\* $p < .01$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표 6〉 연령집단에 따른 주제유지비율 및 KBPR 총점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연령집단	M	SD	F
단순질문	3세 (n=45)	55.77	23.48	1.298
	4세 (n=47)	54.77	27.17	
	5세 (n=40)	63.36	21.63	
특수질문	3세 (n=45)	57.72	26.00	3.994*
	4세 (n=47)	59.43	23.12	
	5세 (n=40)	71.07	20.22	
개방형질문	3세 (n=45)	46.62	21.61	3.086*
	4세 (n=47)	52.50	27.80	
	5세 (n=40)	61.53	21.73	
KBPR 총점	3세 (n=45)	45.33	8.208	2.920
	4세 (n=47)	47.13	6.085	
	5세 (n=40)	47.28	9.146	

\*  $p < .05$  \*\*  $p < .01$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그림 1) 연령집단에 따른 주제유지비율

## 2. 주제유지비율과 언어능력의 상관관계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과 언어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 및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관 분석 결과, 특수질문( $r = .224, p = .023$ )과 개방형질문( $r = .218, p = .027$ )에 대한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질문의 경우 KBPR A영역( $r = .235, p = .017$ ) 및 KBPR 총점( $r = .199, p = .044$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은 A영역( $r = .227, p = .021$ ), B영역( $r = .289, p = .003$ ), C영역( $r = .196, p = .047$ ) 및 총점( $r = .283, p = .004$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점의 경우, 단순질문의 주제유지비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일반아동 집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일반아동 집단의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과 언어점수 간의 상관관계

	REVT-R	KBPR A영역	KBPR B영역	KBPR C영역	KBPR D영역	KBPR 총점
단순질문	.166	.183	.145	.148	-.040	.185
특수질문	.224*	.235*	.155	.100	-.021	.199*
개방형질문	.218*	.227*	.289**	.196*	-.062	.283**

\*  $p < .05$  \*\*  $p < .01$

\*REVT-R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KBPR (Korean Brief Parent Report)

2)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관 분석 결과, 개방형질문( $r = .453, p = .014$ )에 대한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PR 총점 및 하위영역 점수는 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 모두에서 아동의 주제유지비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p > .05$ ).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과 언어점수 간의 상관관계

	REVT-R	KBPR A영역	KBPR B영역	KBPR C영역	KBPR D영역	KBPR 총점
단순질문	.142	-.198	.002	.099	-.214	-.089
특수질문	.360	-.081	.115	.132	-.272	.023
개방형질문	.453*	-.122	.288	.253	-.286	.118

\*  $p < .05$  \*\*  $p < .01$

\*REVT-R(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 3.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에 대한 언어능력의 예측력

각 집단의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에 대해 수용어휘능력 및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 결과가 유의한 예측력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 집단의 단순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없었으며, 특수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의 경우, KBPR A영역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r^2 = .055, p = .017$ ), 나아가 KBPR A영역과 수용어휘력(REVT-R)이 모두 존재할 때 더욱 유의한 예측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 .095, p = .007$ ). 또한, KBPR B영역이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매우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r^2 = .084, p = .003$ ).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단순질문 및 특수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형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에서만 아동의 수용어휘력(REVT-R)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r^2 = .205, p = .014$ ).

〈표 9〉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beta$	$R^2$	$F$
일반아동 (n=103)	특수질문	KBPR A영역	.235	.055	5.917*
	특수질문	KBPR A영역 + REVT-R	.289	.095	5.246**
	개방형질문	KBPR B영역	.289	.084	9.218**
어휘발달지연 아동 (n=29)	개방형질문	REVT-R	.453	.205	6.954*

\* $p < .05$  \*\* $p < .01$

\*REVT-R(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 Receptive), KBPR(Korean Brief Parent Report)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성인의 질문유형(단순질문,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따라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 및 3-5세 연령 집단 간 주제유지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이 현행 언어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지, 현행 언어능력이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은 일반아동 집단이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일반아동이 화용 및 상호작용 능력의 측면에서 언어지연 아동에 비해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김다희·이지운, 2019; 김화수·민운정·김지현, 2019; 이은주·오소정, 2019; 진연선, 2015).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특수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답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순질문이나 개방형질문이 아닌 특수질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시, 특수질문에 대해 주제를 유지하는 능력을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단순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에서는 언어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에게 단순질문의 형식으로 발문한다면, 일반아동만큼의 수행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임상에서 치료사가 어휘발달지연 아동에게 단순질문 유형을 활용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동의 높은 주제유지를 끌어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임상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언어지연 아동에게 단순질문의 형태로 발문하는 것이 상호작용 증진에 있어 효과적이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및 인지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공하는 것이 언어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상언·임동선, 2018).

단순질문과 마찬가지로 개방형질문 역시 언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방형질문이 타 질문유형보다 아동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며 긴 발화 및 많은 어휘 수를 끌어내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두 집단의 아동 모두 주제유지 수행에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de Rivera, Girolametto, Greenberg, & Weitzman, 2005). 언어발달과정 상 ‘왜’, ‘어떻게’와 같이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의문사를 가진 개방형질문의 경우, 2달말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하며 대체로 단 단어 시기에 등장하는 ‘무엇’, ‘어디’를 사용한 의문사보다 발달이 늦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김영태, 2002; 손은남, 2013; Roesch & Chondrogiani, 2012). 따라서 개방형질문은 3-5세 연령의 일반아동에게도 높은 난이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휘발달지연 아동과 일반발달 아동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3-5세의 연령 집단별 질문유형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은 5세, 4세, 3세 순으로 높았으며 전 연령에서 특수질문, 단순질문, 개방형질문 순으로 주제유지비율이 높았다. 3세경에는 문법 기술과 함께 주제유지능력이 증가하게 되고, 성인이 과거의 사건에 주제를 연관시키는 확장된 질문을 제시했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Belinda, 2003). 이에 따라 3세 이상의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전 연령에서 아동이 과거 경험을 대답하거나, 눈앞의 상황을 묘사하도록 하는 특수질문에서 가장 높은 주제유지비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특수질문과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에서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으며 특히 특수질문과 개방형질문 모두 3세 아동과 5세 아동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절한 응답이 증가하고, 수용언어능력과 표현언어능력 모두 3세보다 5세에서 더 발달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초희·이수향, 2016; 손은남, 2013; 윤한샘·김화수, 2019; 임동선·한지윤·강다운, 2020; Pence & Justice, 2008/2010). 즉,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언어발달이 촉진되기 때문에 5세 아동의 언어능력이 3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용적 능력이 학령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급격하게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심현섭 외, 2017; Collins, Lockton, & Adams, 2014; Owens, 2011/2013).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제유지능력으로부터 알 수 있는 화용능력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세 가지로 체계화시켜 분석함으로써 3세와 5세간의 유의한 차이가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에서 더욱 유의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이나 이유, 미래 계획과 관련된 질문들을 개방형질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개방형질문에서 3세와 5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4-5세의 경우 미래 시제 상황에 대한 추측 능력이 발달하고, 의문사 이해에 있어 3세 집단과 4, 5, 6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손은남, 2013; Buckley, 2003). Janet과 Lynn(2008)의 ‘무엇’, ‘어디’를 활용하는 의문문이나, 청유형 질문의 활용은 2-3세에, ‘왜’, ‘어떻게’를 활용하는 의문문의 경우 4세 이후에 발달한다는 내용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5세 아동은 3세에 비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마음이론 수행력이 발달했는데, 타인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하는 화용 능력이 요구되는 개방형 질문의 경우 마음이론 능력이 높은 5세가 더 원활하게 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유소라·박찬옥, 2019).

둘째,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질문유형에 따른 주제유지비율과 언어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은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개방형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산출하기 위해서 질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손은남, 2013; 이정미·권도하, 2005). 또한, 일반아동은 특수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아동 집단과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에서 단순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과 수용어휘능력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단순질문은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의 특성상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성인과 아동의 대화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3-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자유선택활동을 통해 또래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가정에서는 양육자와의 놀이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3-5세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발화나 수용 가능한 생략형태의 발화를 사용할 기회가 많은 자유놀이 상황에 자주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김성수·이상경, 2008; 김유진·이영애·남보라·권정윤, 2018).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단순질문의 경우 특수질문, 개방형질문에 비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곧 단순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은 일반아동과 어휘발달지연 아동을 변별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용어휘능력과 더불어 아동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도구로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능력 평가도구(KBPR)를 적용하였으며, 네 가지 하위 항목 ‘A. 초기 이정표, B. 현재 언어능력, C. 행동 패턴 및 활동 선호도, D. 가족력’과 질문에 따른 아동의 주제유지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아동의 특수질문과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 모두 KBPR A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A영역은 아동의 초기 발달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아동의 첫 낱말 산출이나 짧은 문장 사용 등의 과거 언어능력 및 신체발달 사항 등이 포함된다. 즉, 아동이 특수질문에 대해 주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동의 초기 언어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아동 집단의 특수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의 경우 아동의 초기 발달력이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신체발달과 언어능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역동적체계이론(Dynamic system theory, Kamm, Thelen, & Jensen, 199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한지윤·임동선, 2018). 또한, KBPR A영역과 수용어휘력이 결합했을 경우 특수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더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의 초기 발달력과 더불어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아동의 주제유지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묻는 특수질문의 경우, 질문 자체에서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건 뭐야?’라는 질문보다 ‘어제는 엄마랑 놀이터에서 뭐 했어?’와 같이 질문 속에 여러 단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휘를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질문을 이루는 각각의 다양한 어휘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과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무리 없이 대화차례 주고받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 사용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일반아동 집단의 개방형 질문에 따른 주제유지비율은 KBPR B영역이 매우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어휘발달지연 아동 집단의 경우, 수용어휘력만이 개방형질문에 대한 주제유지비율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아동의 경우, 개방형질문에 대해 주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휘에 대한 이해보다도 조음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장구성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의 언어능력이 갖추어질수록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준 높은 화용적 기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적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Andres-Roqueta & Katsos, 2020). 반면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개방형질문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 질문에 등장하는 어휘 및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어떠한 언어적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반응하거나 정반응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Pence & Justice, 2008/2010; Rescorla, Bascome, Lampard, & Feeny, 2001). 또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후 화용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의 제한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김신영·임동선, 2015; Weismer & Hesketh, 1996). 이와 더불어 단순질문에 대한 주제유지의 경우 ‘예/아니요’의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지만, 개방형질문의 경우에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답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질문에서 활용된 어휘와 질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서도 주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휘발달지연을 가진 아동들에게 여러 자극을 통해 어휘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여준다면 어려운 질문에 대한 주제유지 수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임상적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아동 발화의 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대화차례 주고받기에서 나아가 아동의 주제유지능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더욱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대화차례 주고받기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중재에 있어 다양한 임상적 시사점을 끌어냈다. 먼저 어휘발달지연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성인의 단순질문 사용이 아동의 높은 주제유지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는 교사나 치료사가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 증진을 위해 특수질문에 대한 주제유지 수행력을 높여주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다양한 자극을 활용한 중재를 통해 아동의 어휘능력을 확장 시킨다면 이후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서도 향상된 주제유지 수행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질문에 따른 아동의 응답에 대해 주제가 유지되었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주제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응답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아동의 언어능력을 더 면밀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유놀이라는 단일 상황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다양한 환경에서의 아동 발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유놀이 외에 이야기 및 대화 등의 여러 자발화 상황을 설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아동 발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종단연구를 진행

한다면 주제유지능력이 향후 언어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치료사나 특수교사, 그리고 양육자의 질문방식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상 현장 및 통합교육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상호작용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성리 (2020). 유아특수교사의 놀이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특수교육연구*, 20, 41-67.
- 김다희, 이지윤 (2019). 초기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간접화행 이해. *언어치료연구*, 28(1), 11-18.
- 김설영, 최윤희 (2013). 요리 스크립트를 이용한 대화 주고받기 전략이 발달지체 유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3, 121-144.
- 김성수, 이상경 (2008). 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및 이야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44-62.
- 김성은, 이운경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말차례 주고받기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2(4), 662-675.
- 김신영, 임동선 (2015). 어휘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작업기억 중재가 작업기억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20(4), 469-489.
- 김영태 (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유진, 이영애, 남보라, 권정운 (2018).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만 3 세반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 간 자유선택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8, 263-292.
- 김지은, 최윤희 (2018). 어머니가 실행하는 사회-의사소통 훈련이 무발화 자폐 범주성 장애유아의 놀이 참여행동과 어머니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 25-53.
- 김화수, 민운정, 김지현 (2019). 말 늦은 아동과 자폐성향 아동의 언어특성 비교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9, 147-159.
- 박선화, 노진아 (2019). 자유선택활동에서의 반응적 상호작용 중재가 장애 유아의 참여행동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9, 37-58.
- 박영룡, 최소영 (2019). 그룹프로그램을 통한 대화기술 중재가 학령기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대화차례 주고받기 및 주제유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8(2), 115-128.
- 박찬우 (2020). 선택기회 제공 교수가 중도중복장애 유아의 자발적 의사표현과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 53-80.

- 박초희, 이수향 (2016). 3-5세 일반아동의 자발화에 나타난 표현문형 사용 양상. 한국언어치료학회 ·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 2016년도 제5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 187-190). 한국언어치료학회, 서울.
- 손은남 (2013). 3-6세 아동의 의문사 이해 발달에 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22(3), 111-131.
- 심현섭, 권미선, 김수진, 김영태, 김정미, 김진숙, 김향희, 배소영, 신문자, 윤미선, 윤혜련 (2017). 의사 소통장애의 이해 (3판). 서울: 학지사.
- 유소라, 박찬옥 (2019). 영유아의 마음이론 발달 양상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1(3), 27-43.
- 윤지혜, 김은경 (2020). 태블릿 PC 역할놀이 앱을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가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 107-135.
- 윤한샘, 김화수 (2019). 논항, 서술, 문장 초점의 질문 유형에 따른 2-4 세 아동의 응답특성. 유아특수교육연구, 19, 49-69.
- 이귀옥 (2006). 어머니가 사용한 담화기능 및 질문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 과학회지, 17(3), 3-14.
- 이상언, 임동선 (2018). 상호작용적 책읽기 상황에서 양육자의 질문유형에 따른 어휘발달지연 아동의 정·오반응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3(3), 584-596.
- 이은주, 오소정 (2019). 화용언어능력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24(4), 906-924.
- 이정미, 권도하 (2005). 2-4세 아동의 의문사 이해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4(1), 185-204.
- 이후민, 박지연 (2020).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놀이코칭이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행동과 어머니-장애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 57-82
- 임동선, 박원정, 천성혜, 이여진, 이지연 (2015). 자발화 분석을 통한 만 2-5세 아동의 상호작용 기술 특성 및 언어발달지체 아동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3), 364-373.
- 임동선, 한지윤, 강다은 (2020). 단기종단연구를 통한 아동의 언어능력 예측요인 탐색연구: 작업기억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29(2), 137-144.
- 진연선 (2015). 구조화된 교실 맥락 상황에서 학령기 고기능자폐 아동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의 화행 이해 능력과 마음이해 구문이해 능력간의 관계. 언어청각장애연구, 20(4), 547-558.
- 최지은, 이윤경 (2015).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주제유지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3), 413-423.
- 최현주, 이지현 (2015). 교사질문의 추상화수준과 유아의 어휘다양도 및 평균발화길이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1-25.
- 한지영, 김영태, 김경희 (2002). 초기 표현언어발달에 관한 부모 보고 평가의 타당도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7(2), 46-63.
- 한지윤, 임동선 (2018). 부모 보고형 아동 언어 능력 평가도구(KBPR)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언어치료연구, 27(2), 69-84.
- 허현숙, 이윤경 (2012). 언어학습부진아동의 대화차례 주고받기 및 주제운용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7(1), 66-78.
- 홍경훈 (2009). 아동의 초기 표현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상호작용 요인 분석. 언어치료연구,

18(3), 35-49.

- 홍옥표, 이윤경 (2016). 경도지적장애아동의 대화특성. *특수교육*, 15(2), 111-126.
- Andres-Roqueta, C., & Katsos, N. (2020). A distinction between linguistic and social pragmatics helps the precise characterization of pragmatic challenge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3, 1494-1508.
- Buckley, B. (2003). *Children's communication skills*. London, New York: Routledge.
- Collins, A., Lockton, E., & Adams, C. (2014). Metapragmatic explicitation ability in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ovel clinical assess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52, 31-43.
- Dale, P. S., Tosto, M. G., Hayiou-Thomas, M. E., & Plomin, R. (2015). Why does parental language input style predict child language development? A twin study of gene - environment corre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57, 106-117.
- de Rivera, C., Girolametto, L., Greenberg, J., & Weitzman, E. (2005). Children's responses to educator's questions in day care play group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4(1), 14-26.
- Janet, R. L., & Lynn, K. F. (2008). *Guide to communication milestones*. Illinois: Linguisystem press.
- Kamm, K., Thelen, E., & Jensen, J. L. (1990). A dynamical systems approach to motor development. *Physical Therapy*, 70(12), 763-775.
- Owens, R. E. (2013). 언어발달 (8판)(이승복, 이희란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출판연도 2011).
- Paradis, J., Emmerzael, K., & Duncan, T. S. (2010). Assessment of English language learners: Using parent report on first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3(6), 474-497.
- Pence, K. L., & Justice, L. M. (2010). 언어발달-이론에서 실제까지(김성수, 김화수, 이상경, 황보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연도 2008).
- Rescorla, L., Bascome, A., Lampard, J., & Feeny, N. (2001). Conversational patterns in late talkers at age 3. *Applied Psycholinguistics*, 22, 235-251.
- Roesch, A. D., & Chondrogianni, V. (2012). Comprehension of complex wh-questions in pre-school French-speaking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children with SLI. In *The 37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pp. 358-370).
- Rowe, M. L., Leech, K. A., & Cabrera, N. (2016). Going beyond input quantity: Wh questions matter for toddlers'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Science*, 41, 162-179.
- Weismer, S. E., & Hesketh, L. J. (1996). Lexical learning by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Effects of linguistic input presented at varying speaking rat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1), 177-190.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anguage Skills  
for Topic Maintenance of 3-5 Years Ol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an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ccording to Adults' Question Type in Free Play**

Yim, Dongsun · Choi, Jeewoo · Kim, Jinju · Lee, GangEun · Park, Wonjeo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topic maintenance ability in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TD) and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VD) in regard to the adults' question type and to investigate whether language skills predict topic maintenance ability in spontaneous speech. A total of 132 children aged 3-5, including 103 TD children and 29 V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Spontaneous speech samples of adults and children were collected during free play settings. The question types of adults were classified as simple, specific, and open-ended questions, and the number of children's topic maintenance was obtained from each question type. Linguistic factors which predict the topic maintenance ratio were analyzed for each question type. The study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TD children and VD children in specific questions condition. In addition, it was receptive vocabulary score which significantly predicted the topic maintenance ratio for specific questions in children with TD. While children's current language skills(B section of KBPR) significantly explained the topic maintenance ratio for open-ended questions. In groups of VD children, receptive vocabulary scores predicted the ratio of topic maintenance to open-ended questions.

*Key words : free play, question type, topic maintenance, language skills*

게재 신청일 : 2020. 10. 31.

수정 제출일 : 2020. 12. 02.

게재 확정일 : 2020. 12. 07.